

불심시심 <56>

정토를 구하라

吾生六十三 年 내 나이 육십에 또 세 해 동안  
(오생육십삼년)  
徒費光陰雪滿 頭 한자 세월만 허비하고 흰 눈만 이마에 가득  
(도비광음설만두) 채찍 휘두른 강론 헛것이 혀 움직이고  
(화진강시허도설) (관화승처역방산)  
黃華吟處亦 妨禪 화엄을 괴듯 읊었지만 선에는 방해되다  
(관화승처역방산)  
綠蘿懸月誰爲 主 파릇한 고운 풍경 누가 임자일까  
(록로연월수위주)  
碧峯雲泉我自 專 푸른 피, 구름 샘 나만의 전유물  
(벽봉운천자전) (벽장운천자전)  
從此箇中心靜 住 이제부터 여기에 마음 고요히 멈추어  
(종차개중심정주)  
西歸淨業極精 妍 서방으로 가 깨끗한 업 정성껏 닦으리  
(서귀정업극정연)

위 시는 백암(柏庵)선사의 정토찬(淨土讚)의 일부이나, 이 정토찬은 정토보서(淨土寶書)를 편찬하고 그것을 시운으로 다시 읊은 듯하니, 그렇다면 계승의 전형적 작품이라 하겠다. 정토보서는 대사가 임자도에 표류하던 중국의 선박에서 많은 불사를 수습했었는데 이 정토찬의 시는 그것을 다시 가려 편집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러한 불경들의 편집이 50세 때의 일이고 10여년 뒤 63세에 이 정토찬을 지은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정토보서와 정토찬은 표리의 관계를 가지니, 정토보서의 정토를 찾았으면 여러 사상을 경전에서 수습하였고, 이것을 정토찬에서 100수의 연작으로 읊은 것이다. 그러나 이 정토찬이아말로 불교사가 있어서 대단히 의미깊은 수작이라 하겠다. 단일 소재로서 시와 문이 함께 이러한 거장으로 남은 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기 때문이다. 위 시는 그 중에서 29번 째의 시이다. 정토보서의 서문에서 "정토를 구하는 것은 열불보다 나은 것이 없다" 했듯이 63세

를 지나고 보니 그동안 강경이나 참선이 모두 헛된 일이었다는 것이다. 허다히 주마의 재찍을 휘두르며 강론을 하였지만 그것은 헛된 혀의 놀림에 불과했고, 화엄을 꿰뚫듯이 읊조리기도 하였지만 그 또한 참선에는 방해가 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파릇파릇 아른거리는 저 고운 달은 누가 주인이 되는 것인가. 그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는 이 누구냐 주인될 수 있듯 서방정토의 주인도 바로 나인 것이다. 마치 저 푸른 피 구름에 가린 샘물을 마음대로 내가 간직할 수 있듯이, 이러한 속에 내 마음을 고요히 간직하여 이 깨끗한 업을 닦으리라는 것이 60을 넘긴 대선사의 새삼스러운 바람이기도 하다. 이 정토찬은 100수로 된 장편의 연작이다. 계승시가 흔히 일반적인 시적 구속력을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이 정토찬은 한시의 외형적 조건도 성실하게 갖추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본다면 작자인 백암은 당시의 시문학에도 남다른 조예가 있는 듯 하다. 이준찬 <동국대 교수>

# 불교미술대전 심사·운영등 '오픈'

## 투명성문제 불식 공모전 권위 '보장' 전통·현대 불교미술 분리 매년 실시 심사위원 대폭늘여...실기작가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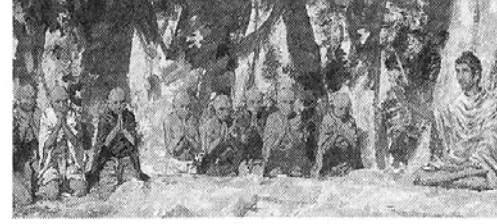
교계 유일의 불교 미술인의 등용문 대 한국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의 운영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1970년 창설된 불미전은 유수의 불교미술인을 탄생시키는 요람수실을 해왔으나 선서화의 대중화를 이루는 계기를 만들고, 아시안게임·올림픽 등 세계인의 잔치가 열릴 때마다 우리나라 전통미술을 보여주는 대표적 역할을 해오는 등 연륜을 쌓아왔다. 그러나 공모전형식으로 운영되는 불미전은 일부 운영과 심사방법 수직적전정 등에 투명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높았고 따라서 명실상부하게 권위있는 공모전이 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을 불리일으켜왔다.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두부분의 성격은 분명히 하는 것이 좋은 작품의 창작과 불교미술의 발전을 위해 되고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수렴된 것. 그리고 그사람이 그사람이라는 심사위원회 구성도 대폭 수정된다. 재가자들이 실기작가들도 다수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고문 자문위원을 두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수도 현재의 12명보다 많은 16명정도 늘릴 예정이다. 또한 재능있는 작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최고상인 대상

## "그림 2천4백여장으로 부처님일대기 본다"

### 김산호씨 회화집 '대불전' 3권 펴내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의 중요 장면을 하나하나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려주고 이 그림 2천4백여장으로 구성된 그림책(대불전)이 나온다. 전 3권으로 엮여지는 (대불전)은 부처님 탄생당시의 시대적 배경부터 사문유관, 출가, 성불, 처음 걸음 법륜, 기원정사, 사가죽의 출가, 아저사르부왕, 스라바스티, 불교종단의 완성, 입멸 등 불교의 탄생과 전말의 명장면들을 세심한 고증에 따라 전형적인 서양화기법으로 그려져 해설이 들어간 그림책으로 이



김산호씨의 오랜 원력으로 나온 회화집 <대불전>의 한 장면.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설법하고 있다.

것을 수록한 16개의 비디오테이프가 곁들여진다. 그림과 글은 김산호씨. 지난 93년 우리 배달 민족의 역사를 복원한 최초의 회화 극본 <대조선제국사(大朝鮮國史)>를 펴내 화제를 모은 바 있는 서양화가이다. 오래전부터 부처님의 드라마틱한 일생을 수준높으면서 이해가 쉬운 포포용으로 그린 회화책 발간의 원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김씨는 객관적 고증을 위해 지난 10여년간 로마니등 부처님 6대성지를 답사해 현장 스케치했고 많은 전문서적을

## "한국불교 현대사고 필요하다" 서구문명 선별수용등 시대흐름 적응해야

### 덴마크 소렌슨 교수가 말하는 '21세기 한국불교'

현재 한국불교는 변화를 필요로 하며, 불교의 목적과 현실 생활과의 이종성을 올바르게 이해해 종교의 참가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서양학자의 주장이 제기돼 흥미를 끌고 있다. 불교등 동아시아 종교를 연구해온 헨릭 소렌슨 교수(덴마크 코펜하겐대)는 지난 6월27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주최 한 국제학술회에서 '21세기 한국불교'라는 발표를 통해 어떠한 형태의 종교 행위라도 특정한 사회의 물리적, 사상적 구조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오늘날 세계에서는 서구문명이 곳곳에 침투해 있어 종교가 독립적으로 '인생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하고 이런 관점

## 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왔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 20여년간 한국이 겪어온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발전과 관련시켜 볼 때 한국의 대부분의 불교도들이 가지고 있던 전근대적인 세계관과 도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근대적 사고방식의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같은 자각적 인식과 종교를 세속사회와 떨어진 가치 개념으로서가 아닌 문화의 한 양상으로서 이해하고 변화를 시도할 때 현대적 의미에서의 종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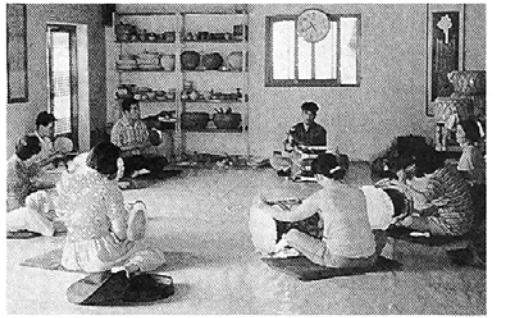


에서 한국불교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체부, 문화재 지정절차 개선

### 위원회 심의기구로...국보·보물 과학적 분석

문화체육부는 문화재지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문화재위원회의 운영을 전방적으로 재검토하고 문화재지정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등 문화재관리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로 했다. 또한 1천여점에 이르는 국보 보물등 주요 동산문화재에 대한 과학적 성분 분석작업을 앞으로 10년에 걸쳐 실시하며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문화재지정의 근거로 활용한다. 김영수문화재정책관은 지난



영천문화재단에서 불자들이 사물놀이를 배우고 있다.

## 영천 용화사문화원

### 다도·도자기등 강좌에 발걸이여

경북 영천시 아사동 용화사에 개설된 불교문화원이 지역문화를 이끌어 가며 그 입지를 다지고 있다. 더구나 지역 최초로 독립된 불교문화원 건물을 9월에 신축할 예정이어서 화제가 되고있다. 전통문화계승과 불교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용화사 주지 지봉스님은 지난해 1월 요사채를 개조해 영천불교문화원을 개원, 지금까지 불교교리 및 다도

## 인사부 귀국전 준비하는 유근상씨

### 禪 등 동양사상 심취 '명상시리즈' 작업

달리아에서 최근 귀국, 귀국됨을 준비하고 있다. "불교의 선사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렸을때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간 기억도 더듬고 여행중에 만나는 풍경, 내면을 스치는 바람 등이 모두 나에게게 화두가 됩니다." 이탈리아 피렌체가 피렌체 미술협회 창립 150주년 기념전에 초대작가로 선정 지난 4월 3

## 탈리아에서 가장 촉망받는 작가의 한사람으로 자리를 굳혔다.

명문 피렌체국립아카데미에서 수학한 그는 여덟차례의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다. 오는 9월 주한 이탈리아대사관 주최로 열리게되는 대규모 귀국전에 이어 내년 5월에는 이탈리아의 가리노마리니미술관에서의 초대전에서도 명상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다. 유근상씨는 "선(禪)사상등 동양의 깊이는 정신세계를 계속 탐구하는 창작과 더불어 후학지도에도 나서겠다"고 말한다. (경)

## bn 캠페인 1 불교 TV시청자가 됩니다

# 부처님을 자주 보면 부처님이 됩니다 불교TV! 부처님을 매일 만납니다

불교TV를 보면 불교를 알게됩니다. 불교TV프로그램 하나하나에는 우리민족 정서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불교문화전통의 질은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미소 그윽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이제 불교TV영상을 통해 만나보십시오.

**bn** 불교텔레비전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모동 418 (금호전기빌딩)  
전화: (02)3270-3300 Fax: 3270-3498

네트워크 TV 설치 문의처

서울지역	강남케이TV(강남구) 1518-3000	강동케이TV(강동구) 4747-115	강서케이TV(강서구) 3683-1414	구로케이TV(구로구) 830-8300	관악케이TV(관악구) 877-5900	노원케이TV(노원구) 934-3366	동대문케이TV(동대문구) 215-0114	동북케이TV(동북구) 433-2121	동성케이TV(동성구) 499-6000	동작케이TV(동작구) 824-8080	마포케이TV(마포구) 717-1125	이제케이TV(이제구) 999-5555	북부케이TV(북부구) 842-0001
부산지역	부산케이TV(부산구) 365-0101	서포케이TV(서포구) 525-8852	중포케이TV(중포구) 318-2700	동포케이TV(동포구) 418-3000	동진케이TV(동진구) 388-8000	중진케이TV(중진구) 733-6781-3	진안케이TV(진안구) 634-3200	진수케이TV(진수구) 645-2222	부산지역	경상케이TV(경상구) 1515-6140	충청케이TV(충청구) 326-9112-6	충남케이TV(충남구) 620-5000	영남케이TV(영남구) 640-8585
대구지역	대구케이TV(대구구) 555-0300	서부케이TV(서부구) 293-0300	중부케이TV(중부구) 551-9300	중남케이TV(중남구) 551-9300	중동케이TV(중동구) 551-9300	중서케이TV(중서구) 551-9300	중북케이TV(중북구) 551-9300	중남케이TV(중남구) 551-9300	중동케이TV(중동구) 551-9300	중서케이TV(중서구) 551-9300	중북케이TV(중북구) 551-9300	중남케이TV(중남구) 551-9300	중동케이TV(중동구) 551-9300
광주지역	광주케이TV(광주구) 271-3000	전남케이TV(전남구) 1551-9991-8	전주케이TV(전주구) 250-6500	전북케이TV(전북구) 766-7777	전남케이TV(전남구) 1551-9991-8	전주케이TV(전주구) 250-6500	전북케이TV(전북구) 766-7777	전남케이TV(전남구) 1551-9991-8	전주케이TV(전주구) 250-6500	전북케이TV(전북구) 766-7777	전남케이TV(전남구) 1551-9991-8	전주케이TV(전주구) 250-6500	전북케이TV(전북구) 766-7777